여의도 하스팟

비미국 대비 미국 약세 일단락 기대

Analyst 하장권 research.ha@hmsec.com

트럼프, 출구 전략에 대한 의지 드러내기 시작

낮은 지지율 속 중간선거 패배가 확정적인 상황에서 트럼프는 이란 침공이라는 High Risk High Return의 패를 던짐. 다만, 초기 시장 기대와 달리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시장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제한하는 모습. 유가 등락에 따라 증시 움직임도 연동되며 하루걸러 낙관과 공포가 반복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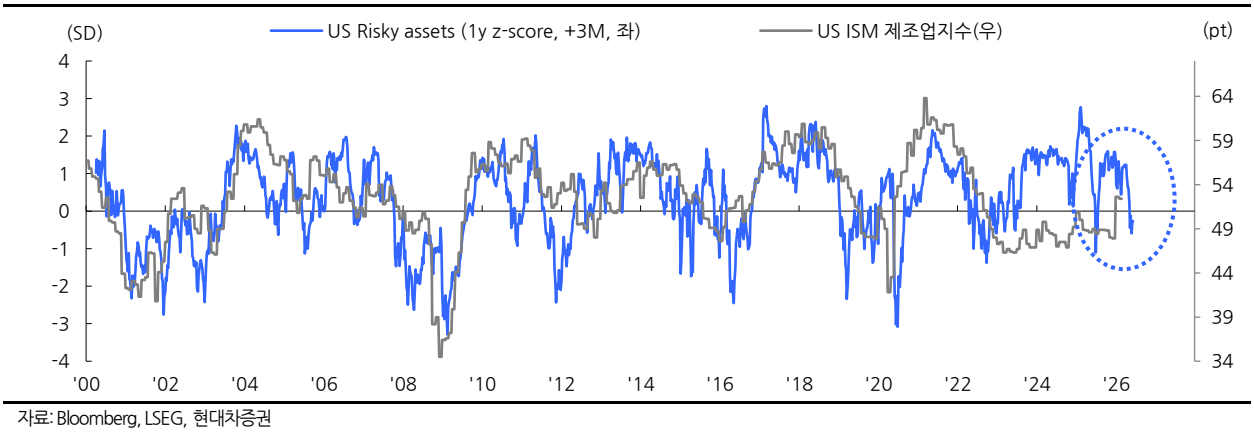
지난 자료**(3/9 [여의도 하스팟] 이제는 악재보다도 호재에 더 민감할 미국 증시)** 통해 언급했듯 트럼프 입장에서 중간선거에 예상되는 득이 실보다 커진다 판단될 때 출구 전략 개시 조건의 허들을 현실적 레벨로 낮출 가능성 농후. 최근의 금리, 유가, 증시 등의 모든 요소가 트럼프 출구 전략 자극할 임계점 부근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됨

이란 사태 트리거로 비미국 대비 미국 증시 약세 모멘텀 일단락 기대

극단적 공포 영역에 진입한 미국 증시. 여타 증시 대비해서 비교적 낙폭이 제한적이었던 미국 증시지만, AI가 이끌어내고 있는 투자, 그리고 이익 전망치를 고려하면 낙폭 과대 영역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 작년 연간전망 자료 작성(11/3) 당시만 하더라도 S&P 500 지수 기준 2027년 예상 EPS는 $340, 12MF EPS는 $300 수준이었음. 2026년이 시작된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현재, 2027년 예상 EPS는 $360을 상회하기 시작했으며, 12MF EPS는 $325 수준에 근접. 더군다나 이런 이익을 견인하고 있는 AI 대형주 주가 멀티플 프리미엄은 최근 5년 최저점 수준. 이란 사태가 야기하는 불확실성이 정점은 지났다 판단되는 현 상황에서 미국 증시의 추가 하락 여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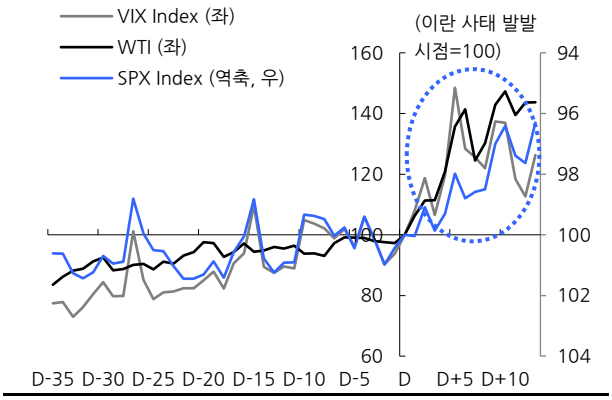
또한, 이번 이란 사태가 미국 증시 약세 모멘텀 일단락의 트리거가 될 것으로 기대. 작년 말 연준의 속도감 있는 금리 인하로 약달러 기대감 본격화되며 비미국 증시 Outperform 지속. 뒤이어 엔트로픽 사태,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지명 등의 이벤트 역시 미 증시 부진 촉발. 현재 MSCI 지수 기준 비미국 대비 미국 지수 상대성과 부진은 2009년 이후 최대치 수준. 다만, 이번 전쟁은 장기화 여부와 상관없이 연준 통화정책 스탠스에 신중함을 더하는 이벤트라는 점에서 미국 증시 약세 모멘텀 일단락의 트리거가 될 것으로 기대. 이익 모멘텀 역시 최근 상승 반전 확인

<그림1> 낙폭 과대 구간 진입한 미국 증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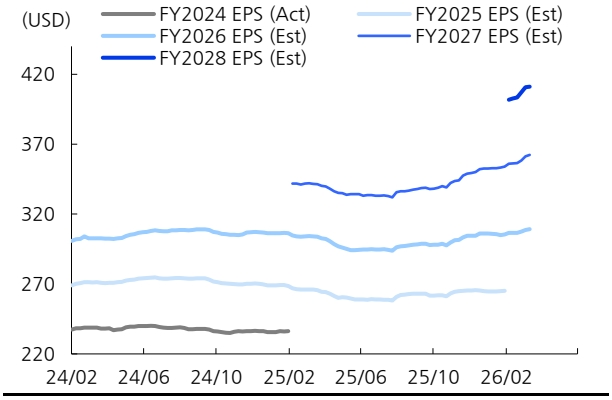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SEG, 현대차증권

〈그림2〉 유가에 연동되는 증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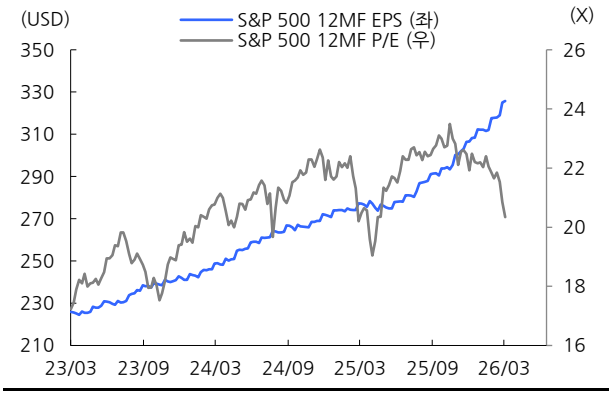
자료: LSEG, 현대차증권

〈그림3〉 이익은 계속 가속 흐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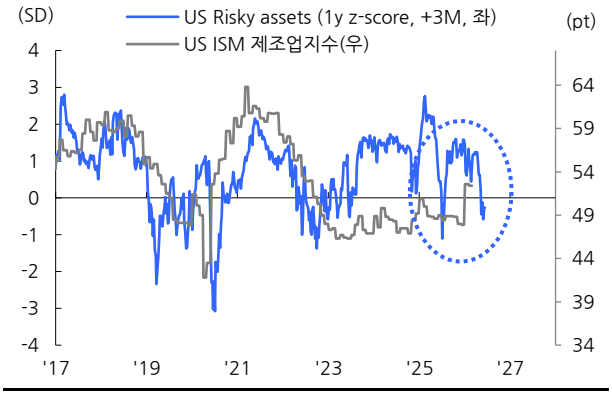
자료: LSEG, 현대차증권

〈그림4〉 덕분에 제한적 낙폭에도 밸류는 저렴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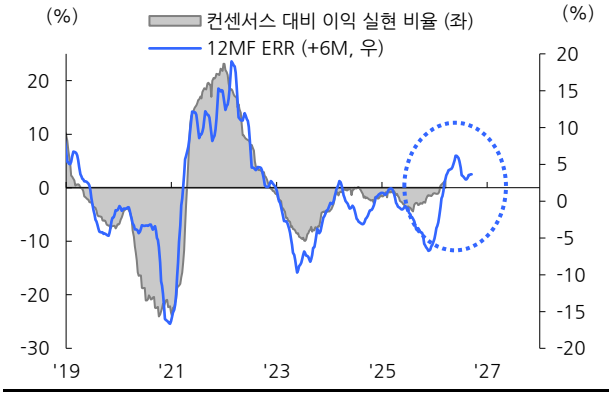
자료: LSEG, 현대차증권

〈그림5〉 펀더멘탈 대비 과대 낙폭 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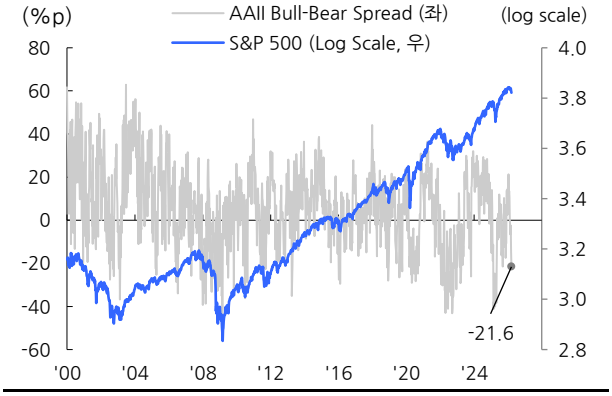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SEG, 현대차증권

〈그림6〉 이익 실현율 (+)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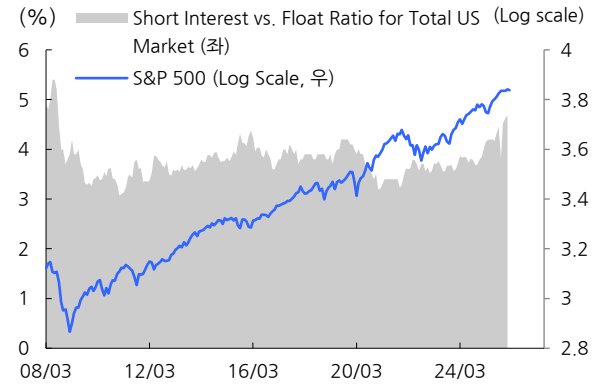
자료: LSEG, 현대차증권

〈그림7〉 개인 심리도 극단적 공포 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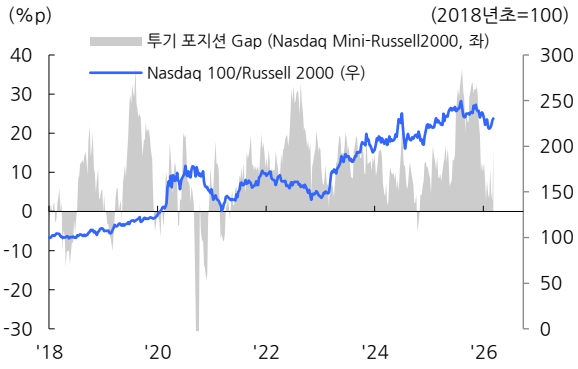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그림8〉 숏커버링 가능성 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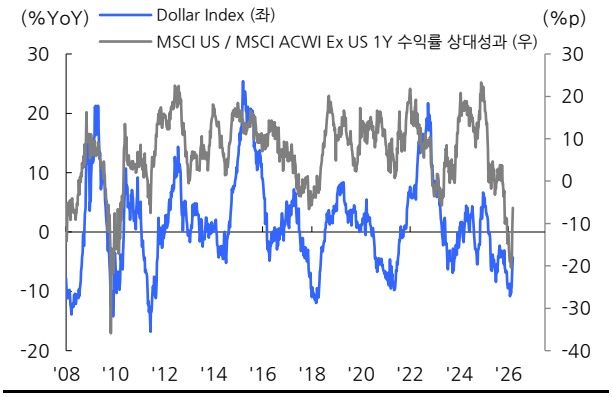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그림9〉 기술주 중심 수급 쏠림은 진작 완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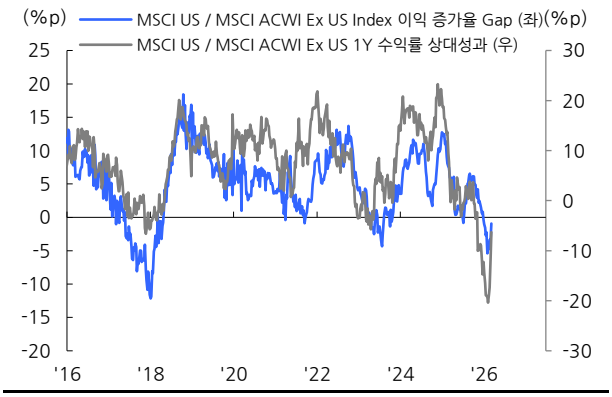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그림10〉 이란 사태는 약달러 기대감 완화 요인



자료: LSEG, 현대차증권

〈그림11〉 비미국 대비 미국 증시 이익 모멘텀 역전



자료: LSEG, 현대차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자료작성자 하장권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